

이나영부터 제이슨 블룸까지…★보러 가자

〈‘갯아웃’ 등을 만든 할리우드 제작자〉

이나영 ‘뷰티풀 데이즈’ 벌써 화제
베니스 황금사자상 수상작 ‘로마’
마이클 무어 ‘화씨 11/9’도 주목
오픈토크·골목파티 관객 소통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막을 올린다. 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개막해 13일까지 열흘간 부산 일대는 영화와 영화인 그리고 관객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마당이 될 전망이다. 특히 23회째인 올해는 지난 3년간의 대내외적인 갈등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만큼 어느 때보다 화려한 축제를 예고한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부산국제영화제를 세 가지 키워드로 훑어봤다.

●부산에서 만날…별 별 별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해외는 물론 국내 영화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타 배우들이 그 전면에 선다. 이나영은 개막작 ‘뷰티풀 데이즈’의 주연으로 영화제 시작을 알린다. 작품으로 관객 앞에 나서기는 6년만이다. 무엇보다 남편인 배우 원빈이 이나영과 깜짝 동행할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늘 ‘예매 전쟁’이다. 이미 화제작은 대부분 매진됐다. 물론 현장표가 남아있지만 여의치 않을 땐 차라리 해운대 비프빌리지 야외무대를 찾는 게 낫다. 5일부터 9일까지 야외무대인사를 통해 최근 한국영화 흥행작인 ‘마녀’의 김다미, ‘공작’의 윤종빈 감독과 이성민 등을 만날 수 있다. ‘신과함께’ 시리즈의 흥행 주역인 주지훈도 신작 ‘암수살인’을 들고 야외무대에 오른다. 친숙한 아시아 스타와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도 부산에 집결한다. 대만의 ‘국민남동생’ 리우이하오가 새 영화 ‘모어 댄 블루’를 부산에서 처음 공개하는 가운데 ‘곡성’의 일본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이나영 주연의 ‘뷰티풀 데이즈’(왼쪽사진), 문소리 주연의 ‘메기’(오른쪽 위 사진),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 ‘로마’ 등 324편이 사진제공 | 부산국제영화제

우 쿠니무라 준은 뉴커런츠 부문 심사위원을 맡고 부산국제영화제와 인연을 이어간다. 어쩌면 유명 스타보다 영화 팬을 더 설레게 하는 주인공은 할리우드 제작자 제이슨 블룸일지 모른다. ‘공포영화계 디즈니’로 통하는 영화사 블룸하우스를 이끌면서 ‘갯아웃’, ‘23아이덴티티’를 제작한 실력자다. 영화 마니아의 막강한 지지를 얻는 그가 처음 찾는 부산에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궁금증이 높아진다.

●부산에서 접할…새로운 영화들

79개국에서 출품된 324편의 영화가 소개되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 최신작은 물론이고 한국영화의 미래를 가늠할 신진 작품을 망라해 만날 수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작품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 올해 칸 국제영화제와 넷플릭스의 갈등을 촉발케 한 문제작이자, 동시에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이



기도 하다. 코엔 형제의 신작 ‘카우보이의 노래’,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화씨 11/9’도 부산에서 공개된다.

한국의 신진 감독과 신예 배우의 도전, 여성 배우의 새로운 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도 여러 편이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1994년을 배경으로 소녀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별새’, 아들을 잃은 엄마의 죄책감을 담은 ‘호호’, 표절과 예술의 경계를 파고드는 ‘숙물들’을 주목할 만 하다. 문소리, 구교환 등 연기파 배우가 합작한 ‘메기’도 있다.

‘뷰티풀 데이즈’도 빼놓기 어렵다. 헤어진 엄마와 아들의 재회를 그린 영화를 두고 전양준 집행위원장은 “가족 해체를 통해, 중국에는 가족 관계가 복원되는 독특한 구조”라며 “시의 적절하게 탈북민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산에서 동참할…오픈무대

관객참여형 무대가 확대된 점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지향을 드러낸다. 신설된 ‘커뮤니티 BIFF’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문. 5일부터 10일까지 관객주도·시민참여를 목표로 부산 중구 일원에서 진행된다. 남포동이 속한 중구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다. 각자 취향에 맞게 마음껏 영화를 관람하는 섹션부터 영화학도의 취향을 겨냥한 특별 코너도 마련된다. 관객이 손수 꾸리는 남포동 골목파티도 함께 펼쳐진다. 영화제는 향후 관객이 상영작의 프로그래머를 맡아 공동체 상영을 이끄는 방식까지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바다를 앞에 두고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토크’는 영화제를 통틀어 관객 참여가 가장 높은 무대다. 6일 ‘버닝’의 유아인과 전종서, 7일 ‘허스토리’의 김희애와 김해숙이 나선다. 개막식 진행을 맡은 배우 김남길도 ‘오픈토크’에 참여한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아이들만? 지친 어른들을 위한 ‘곰돌이 푸’

중년의 로빈을 위로하는 푸와 친구들
만화 대신 실사…‘위라벨 영화’ 기대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자극할 만한 영화가 찾아온다. 100년 가까이 인정받은 스테디셀러 만화를 실사영화로 옮긴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이다. 일에 치이고, 삶에 지친 어른을 위로하고 에너지까지 충전케 할 ‘위라벨 영화’로도 주목받고 있다.

1926년 발표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곰돌이 푸’는 최근 월트디즈니컴퍼니가 클래식 만화를 실사로 만드는 라이브액션 제작에 힘입어 영화로 재탄생해 3일 국내 개봉한다. 곰돌이 푸를 비롯해 티거, 피글렛 등 인기 캐릭터가 실사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궁금증이 이는 가운데 스토리 역시 호기심을 자극한다.

영화는 주인공 로빈이 중년이 돼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이야기를 펼친다. 어릴 적 추억을 잊고 일과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로빈 앞에 다시 나타난 곰돌이 푸와 친구들의 모습이 주요 내용이다.



‘곰돌이 푸’

앞서 디즈니가 내놓은 라이브액션 시리즈 ‘정글북’과 ‘미녀와 야수’가 그랬듯, 이번 ‘곰돌이 푸’ 역시 10~20대를 넘어 어른 관객까지 공략한다. 꿈을 잃고 중년이 된 로빈의 모습, 그를 다시 찾은 친구들의 이

야기가 동시대 어른관객을 자극하고 일깨우는 역할까지 해낸다.

개봉 전 진행된 여러 시사회를 거치면서 ‘곰돌이 푸’는 본격 위라벨 영화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일과 삶을 균형을 통해 진짜 행복을 추구하자는 움직임이 영화의 메시지와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다.

관객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개봉 전 모니터시사 결과 5점 만점에 만족도 4.2점, 감상충전지수 4.5점이 나왔다”며 “이는 디즈니 영화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올해 초 350만 관객을 모은 ‘코코’와 비등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연예뉴스 HOT 4

김지운 감독, 佛문화예술 훈장 받아



영화 ‘인랑’ ‘밀정’의 김지운 감독이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대사 파비앙 페논)과 전 세계에 프랑스 영화를 알리고 있는 유니 프랑스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인 6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한불 영화인의 우호증진을 위한 ‘프랑스의 밤’을 개최하고, 이날 김지운 감독에게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 ‘오피시에’를 수여한다. ‘오피시에’는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창작성을 발휘하거나 프랑스 및 세계 문화 분야에 공헌이 큰 이들에게 프랑스 문화부가 수여하는 훈장으로 한국 영화감독으로는 홍상수 감독, 봉준호 감독에게 수여된 바 있다.

NCT 127, 美 ‘미키마우스’ 기념무대에

남성그룹 NCT 127이 인기 애니메이션 ‘미키마우스’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NCT 127은 미국 ABC 주최 ‘미키마우스 90주년 기념 콘서트’에 한국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진행되는 녹화에서 신곡 ‘레귤러’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콘서트에는 크리스틴 벨, 조쉬 그로반, 메간 트레이너 등 공개된 스타들 외에도 해외 톱스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무대는 11월4일 오후 8시(미국 동부표준시) ABC를 통해 방송, 10월 8일 ABC ‘지미 키멜 라이브’ 출연 소식에 이어 또 한번 미국 지상파에 출연하게 됐다.



김민영 서주원 커플은 ‘하트시그널’ 패널로 출연했던 서주원이 신동과 작사가 김이나로부터 김민영을 소개받고 지난해부터 교제를 해왔다. 서주원은 2008년 카트라이스 데뷔 후 2010년 코리아카트챔피언쉽 최연소 챔피언을 거머쥐고 2013년 한국인 최초 일본 카트 시리즈 챔피언 등 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영은 10년차 뷰티, 피팅 모델로 SBS 유혹낙, 온게임넷의 하스스톤, 게임플러스 등 다수 게임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했던 레이서 서주원(24)과 모델 겸 방송인 김민영(27)이 11월11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웨딩마치를 올린다. 서주원은 ‘하트시그널’ 패널로 출연했던 서주원이 신동과 작사가 김이나로부터 김민영을 소개받고 지난해부터 교제를 해왔다. 서주원은 2008년 카트라이스 데뷔 후 2010년 코리아카트챔피언쉽 최연소 챔피언을 거머쥐고 2013년 한국인 최초 일본 카트 시리즈 챔피언 등 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영은 10년차 뷰티, 피팅 모델로 SBS 유혹낙, 온게임넷의 하스스톤, 게임플러스 등 다수 게임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소라·로이킴, 신곡 ‘옥토버 러버’ 공개



가수 이소라가 로이킴과 손을 잡고 신곡 ‘옥토버 러버’를 2일 선보인다. ‘옥토버 러버’는 이소라가 2016년 발매한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이후 2년여 만에 공개하는 신곡이다. 이소라와 오랜 작업으로 최고의 호흡을 자랑했던 정지찬이 다시 한번 작사, 작곡, 편곡을 맡았으며 이소라 역시 공동 작사에 참여했다. 여기에 2018년 ‘우리 그 만하자’ ‘그때 헤어지면 돼’로 음원차트 1위를 휩쓴 로이킴이 피쳐링했다. 이번 싱글은 뮤직 크리에이티브 그룹 스페이스오디티와 함께하는 ‘시월애 하늘’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준비됐다. 다양한 사람들이 촬영한 ‘10월 하늘’을 릴레이로 보여줄 예정이다.

이정연의 꼬리물기



또 워너원 매니저 팬 폭행 ‘역지사지’ 맘으로 바라보길…

어느 한쪽만 잘못했다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좋아하는 스타를 조금 더 가까이보고 싶어 하는 팬이나 스타의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매니저나 양쪽 모두 ‘자기 일’에 충실 했을 뿐이다.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매니저가 팬을 폭행했다는 논란으로 주말 온라인이 시끄러웠다. 4초짜리 문제의 동영상에는 매니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워너원을 보기 위해 뒤따라가던 한 여성 팬을 힘껏 밀쳐냈고, 해당 여성은 사정없이 내동댕이쳐진 모습이 담겨있다. 충격적이었다. 워너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대응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를 본 누리꾼도 “폭행죄로 고소하라”고 비난했고, 소속사 측은 “해당 인물은 소속 매니저가 맞다. 과잉 대응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징계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며 사과하며 논란을 수습했다.

워너원 측 매니저의 팬 폭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레드벨벳, 샤이니, 씨엔블루 등 매니저들도 팬을 폭행해 비판 받았고, 엑소의 매니저는 관련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점이다. 인기 아이돌이 있고, 이들의 팬이 있는 한 또 어떤 돌발변수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도청, 몰래카메라, 위치추적 장치 등을 이용해 범죄에 가까운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인을 지키기 위한 매니저나 경호원 등의 움직임은 더 예민해지고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

일부 아이돌 팬들은 “상식을 넘지 않는 행동을 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연예인과 팬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건전한 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조금 더 가까워서 보고 싶고, 카메라에 담고 싶은 팬들의 마음이야 백번 이해하지만, 가수 매니저나 경호원의 통제를 따르고, 스스로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충돌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매니저들도 팬들을 더 이상 ‘위험 인물’로만 인지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는 생각으로 존중한다면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annjoy@donga.com